

113-2大直高中韓語朗讀比賽朗讀稿

괜찮아

한강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세 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 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문학동네 2004 여름/

〈沒事了〉/ 韓江

孩子剛出生兩個月的時候
每天晚上都哭
不是因為肚子餓
也不是因為哪裡不舒服
沒有任何理由
從太陽西下到晚上，整整三個小時

擔憂如同泡沫般的孩子會消失
我雙手抱著
在屋子裡繞了無數次，問他
怎麼了
怎麼了
怎麼了
我的眼淚落下
有時還滴進孩子的眼淚中
某一天
我突然說出
沒有任何人教過的
沒事了
沒事了
現在沒事了
如同謊言一般
雖然孩子的哭聲沒有停止
平靜下來的
雖然是我的哭泣，但
應該是偶然的一致吧
幾天後孩子就停止了夜晚哭泣
過了三十歲才知道
當你在我懷裡哭泣的時候
應該怎麼辦
靜靜地看著哭喊的孩子的臉
對著那極鹹且如泡沫的眼淚說道
沒事了

不是怎麼了

而是沒事了

現在沒事了

———

收錄於《把晚餐放進抽屜》2013

中文譯者 盧鴻金